

근엄한 것들의 허영 비웃는 진정한 리얼리스트

《독충》 펴낸 이제하씨



이제하씨

세계사/A5신/264면/7500원

소설가 이제하씨(64)가 15년 만에 신작 소설집 《독충》(세계사)을 선보였다. 이번 소설집에서도 그 특유의 '환상적 리얼리즘'으로 덧씌워진 여섯 편의 작품을 맛볼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소설들은, 읽는 이의 뒤통수를 느닷없이 후려치는 작가의 '기괴한 상상력'이 예순넷의 나이에도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학은 현실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그의 소설들이 보여주는 낯설고 기이한 느낌과는 달리 이씨의 집은 평창동 가나아트 아랫골목,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았다. 화실을 겸하고 있는 그의 집 현관 앞에는 노랗게 물든 개나리의 행렬이 한창이다. 이씨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구만, 꽃을 피웠네 그러” 하고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창 밖의 목련나무에 던지시 눈길을 던진다. 삶과 죽음,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그의 상상력이 꼭 소설에서만 펼쳐지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저승사자를 만나고(〈담배의 해독〉), 죽었던 강아지의 환영을 보는(〈삐죽아씨, 삐죽귀신〉), 말 그대로 소설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어쩌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고 그의 눈짓은 은근히 내비친다.

“내 소설을 두고 환상적 리얼리즘이다 하면서 유난을 떠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광고나 영화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해왔지 않나? 엽기영화니 하는 것들은 잘 보면서도 문학이 조금

만 비틀어버리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 문학이야말로 현실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하는 것 아닌가?”

〈견인〉은 부조리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인공 나는 아내와 동창 부부를 태우고 북악 스카이웨이를 지나던 중 네바퀴가 모두 펑크가 난다. 주인공은 근처 만두집에 도움을 청하러 간다. 여기까지는 평탄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단칼에 연놈이 작살 나는 비명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내일 아침이면 형체도 없는 만두속이 돼 연놈은 아마 접시에나 얌전히 담겨 나오게 되리라”고 끝맺는 결말은 소설을 따라가던 독자를 갑자기 벼랑 끝으로 내몬다. 게다가 그동안 성적 능력을 잃어버렸던 주인공이 남성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상황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정이다. 그는 “풍자한 거지. 수컷의 비루한 성적 욕망과 왜곡된 남성상을 비꼬는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그의 말대로 이번 작품집에 실린 작품에서 세상과 인간과 이념이 지닌 허영을 비웃는 그의 모습은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다. “뒤죽박죽 가치관도 질서도 없이 수세미처럼 엉켜버린 바깥 사회 정세”(〈어느 낯선 별에서〉)와 “김밥에는 단무지 결들임이 제격의 반찬이라고 못박아 놓는 세상의 저 고정관념”(〈금자의 산〉)에 대항하는 그의 지독한 냉소가 작품집 군데군데 지피처럼 숨어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그의 문학이 환상성의 독특한 표출이라는 선에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에 저항

15년 만에 창작집 《독충》을 펴낸 이제하씨는 그만이 구사할 수 있는 ‘환상적 리얼리즘’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이 창작집에 실린 여섯편의 중단편을 통해 그와 그의 소설이 우리 문단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냉소로 우리 사회의 허위의식을 발가벗기는 그의 소설은 이 노작가의 ‘기괴한 상상력’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말해준다.

한다는, 문학의 본령에 가장 충실한 작품이라는 ‘면죄부’를 받는 지점이기도 하다.

인간소통 문제에 주목해

이번 소설집에서 그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소통’이다. 각 작품마다 등장하는 남녀주인공은 연인이나 혹은 부부의 관계로 맺어져 있지만, 그들 사이의 소통은 막혀 있다. 〈담배의 해독〉에서 주인공이 연애감정을 느끼던 여자는 저승사자며, 〈독충〉에서 현기철 선생은 유정래 선생 앞에 지네의 몸으로 나타난다.

“휴대폰이네 이메일이네 하지만 갈수록 소통이 안되고 있어.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말이야. 뒤틀릴 대로 뒤틀린 인간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던 거지. 남녀관계야말로 세상의 기본 골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의 고전적인 연애감정을 되새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

그는 화가보다는 소설가로 불리고 싶어한다. “원고에 시달려 그림 그릴 틈이 없다”고 말하는 그는 전집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재하다 그만둔 〈모래톱〉도 끝내야 하고, 〈유자열전〉의 ‘어린 유자’ 부분도 써야 하고... 아, 그리고 〈유자열전〉 그거 쓰는 데 한 삼십년 걸렸는데, 그게 필생의 역작을 만들겠다는 야심 같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게을러서 그래.”

누가 앞질러 말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작품에 대한 호사가들의 ‘환상’을 미리 경계하는 것을 보면, 그는 진정한 리얼리스트임에 틀림없다.

— 최갑수 기자